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s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새37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방모세 집사 2부/김학남 집사 3부/박호성 집사 4부/이민수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약속의 땅 바라볼 때(박재형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John) 3:14-16 Altogether 다같이
4부/신명기(Deut.) 1:9-18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3) 요 3:16도 거듭나야

4부 Pastor Yoseb Choi 최요셉 전도사
함께 짊어질 때(It's Time to Carry It Together)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갈보리산 위에(찬135/새150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 사람

Three Women, One Wedding Dres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제가 수술 받기 하루 전날 미국 동부에서 먼 길을 달려와 기도해 주고 떠났던 그 신학교 동기 친구가, 6개월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신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고, 캠퍼스 코트에서 함께 농구를 하며 땀 흘리던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사모님과 내 아내도 동갑일 뿐만 아니라, 자녀도 똑같이 넷씩 낳았고, 특히 아내가 그 사모님이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이어 입고 결혼했기에 우리의 우정은 더욱 특별합니다.

마침 남가주에 계신 선배 목사님 내외분도 함께 모였습니다. 모처럼 만난 목사들의 대화도 깊었지만, 세 사모님들의 웃음꽃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끈끈한 서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는 사실 선배 사모님의 드레스였습니다. 친구 사모가 두 번째, 그리고 내 아내가 세 번째로 빌려 입었던 것입니다. 가난했던 전도사 시절, 돈 한 톨 안 들고 예쁜 드레스를 입었다며 아이처럼 좋아했던 아내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당시 결혼식 사진 속에서 유독 웃지 못하고 마음 상해 보이셨던 장인·장모님의 모습도 이제야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저 딸을 보내는 서운함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부모가 되어 보니, 번듯한 새 드레스를 입혀 보내도 가슴이 시릴 판에 남이 입었던 드레스를 가져 입는다고 천사처럼 웃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땤했을지... 가난한 전도사에게 딸을 맡기며 속으로 울었을 장인·장모님께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객들을 서서 식사하게 했던 리셉션도, 친구가 입었던 드레스를 입힌 것도 부모님께는 참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낯뜨거울 만큼 부끄럽고 아쉬운 순간이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화려한 리셉션을 차리고 새 드레스를 찾아 나설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처럼 배를 잡고 웃으며 나눌 배부른 추억도 없었을 테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고, 배고플 때 끓여 먹던 라면 한 그릇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친구란 바로 이런 추억을 함께 빚어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란 함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본 이들입니다. 그 단단하고 끈끈한 우정은 세상의 어떤 화려함으로도 덮을 수 없는, 가난까지도 기꺼이 공유했던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The seminary friend who drove all the way from the East Coast to pray for me the day before my surgery returned for another visit six months later. We are the same age and spent countless nights studying together in the seminary library and many hours playing basketball on the campus courts. Our wives are also the same age, and both of our families have four children. What makes our friendship even more special is that my wife wore the very same wedding dress his wife had worn for their wedding.

Another pastor and his wife from Southern California, who were a few years ahead of us at seminary, joined our gathering as well. While the pastors enjoyed catching up and sharing meaningful conversations, the three wives filled the room with endless laughter. They shared a unique bond and a story that few others could ever experience. The wedding dress my wife wore had originally belonged to the wife of the pastor who had been a few years ahead of us at seminary. My friend's wife wore it next, and my wife became the third bride to wear the very same dress. I can still vividly remember my wife, back in our financially struggling days as a young ministry family, beaming with childlike joy as she said she couldn't believe she was able to wear such a beautiful wedding dress without spending a penny. It feels like only yesterday.

Looking back at our wedding photos, I now understand why my father-in-law and mother-in-law seemed unable to smile. At the time, I thought they were simply sad to see their daughter getting married and leaving home. Now that I am a parent myself, I see it differently. Even if she had been wearing a brand-new wedding dress, their hearts would have ached. How much harder it must have been to watch their daughter smiling with such joy simply because she could wear a beautiful dress that someone else had worn. Even now, I feel deeply sorry when I think of my in-laws entrusting their precious daughter to a young pastor with so little to offer. The simple reception, where many guests had to eat while standing, and the borrowed wedding dress must have weighed heavily on their hearts. If I had the chance, I would want to tell them once again how truly sorry—and grateful—I am.

Looking back, those moments are almost embarrassing to remember. Yet if I could go back and do it all over again, I wouldn't choose a grand reception or a brand-new wedding dress. If we had, we might never have had the kind of memories that still leave us laughing until our sides hurt today. Perhaps that's why people say the hardships of youth are never wasted, and why a simple bowl of ramen shared in hungry days becomes a cherished memory years later. That is what friendship is—people who have shared those memories together. Faithful partners in ministry are those who have walked through seasons of hardship side by side. The deep, enduring bond they share is rooted in those days when they willingly shared not only their dreams, but even their poverty.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요 3:16도 거듭나야 (요한복음 3:14-16)

1. 나의 신앙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감격과 감사가 무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2. 본문이 말하는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꼈던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16절)
3.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말씀은 삶의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기 보다,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뱀을 쳐다보는 심정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정을 비교해 보십시오.(14절)
4.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입니다. 언제 이 사랑을 절실히 느껴 보신 적이 있나요?(16절)
5. 영생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16절)

적용하기



■ 적용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선교 후기

KCC 미션 컨퍼런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몇 년 전 KCC 미션 컨퍼런스를 알게 된 때부터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꼭 한 번 참여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알고,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낼 뿐만 아니라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 역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현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습니다. 부족한 수면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몸은 지쳐 갔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일정은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에 두 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얼굴에 기쁨을 잃지 않고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은 말없이 큰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불편한 몸에도 감사와 미소를 잃지 않으신 지형제님의 간증은 제게 깊은 감동과 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무심하고 수동적이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귀를 기울이며 긍휼의 마음을 품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 북한 인권법안을 다시 상정시키기 위해

미국 상/하원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들의 생각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순간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게 되었고, 앞으로도 기도와 작은 실천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후, 평소 과묵한 아들이 제

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엄마, 내년에도 이 미션 있어? 꼭 다시 참가하고 싶어요." 그 짧은 한마디는 이번 KCC 미션이 제 아들의 마음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년에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손혜미 집사

간증

새가족 환영회

특별한 은혜의 시간



안녕하세요. 이번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베델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엄은주 성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

라오며 늘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때로는 그 신앙이 익숙함에 무뎠던 채 늘 당연한 듯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UCI 연수 일정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이곳 어바인에 1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미국 땅에 오니,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먼저 앞섰습니다. 영적으로도 익숙한 율타리를 떠나 홀로 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모든 순간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베델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무엇보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은 위로와 영적인 회복을 크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가족팀 분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정성스러운 섬김은 저희 가족이 낯선 타

향살이 속에서 신앙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되지만, 이 시간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잠시 동안의 여정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델교회 안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베델교회 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엄은주

Come&See 50 특집 9

베델의 여정

기쁨으로 섬기는 베델의 토양 아래서

베델교회가 50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이 반세기의 세월이 짧지 않은 기간인데, 우리 가족은 1993년 1월에 등록했으니 베델 역사의 2/3 정도를 함께해 온 셈이고, 그 30여 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가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윤목사님은 저희가 LA에서 믿음생활을 할 때 그 교회의 교육목회자로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오랜지 카운티 어디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다고만 들었다가 인연이 되어 3대 손목사님 때에 베델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는데, 매주 선포되는 말씀과 베델동산 등의 영성 사역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았고, 주위 분들의 권유로 교회 사역과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IT 사역을 열심히 섬기고, 그 외 여러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그야말로 '신나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저희와 같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분위기였고,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

으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시급함을 깨달아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몽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은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추운 땅에서 여러 해를 섬기게 되었

고, 아내 이인자 권사는 간호사로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여 보람 있는 제2의 삶을 살았다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베델교회는 선교 사역에 큰 비중을 두어 왔는데, 덕분에 단기선교도 자주 다녀오고 선교지에 대한 관심과 기도도 깊어지면서 직장에서의 은퇴가 가까워지니 본격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녀본 여러 나라에서 컴퓨터 전문 교육을 대학 수준에서 필요로 하나 강의와 연구를 지도할 교수 요원이 부족함을 인지하여 몇 지역을 방문하고 의논하던 중, 몽골에 선교대학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고 여러 여건상 소

돌이켜 본다면 베델의 토양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도, 의욕도, 실제적인 기회도 없었을 것인데, 비록 작은 자이나 주님의 귀한 도구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50세를 맞는 베델교회는 이런 작은 자들의 간증이 모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집합체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50년도 이러한 살아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청 장로

교회학교 소개

유치부

민음의 첫걸음



저희 베델교회는 다음 세대에 게 주님의 참된 복음과 올바른 신앙관을 물려주기 위해 교회 학교 사역에 아낌없는 사랑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치부는 아직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부를 졸업한 아이들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가며, 말씀을 배워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곳이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심겨지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평생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37개월 아이부터 공교육을 시작한 Pre-K 또래의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저희 유치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부임하신 전소연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2·3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약 50명의 선생님들과 학생 TA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수줍음이 많은 아이부터 눈빛만 봐도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들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지만, 찬양과 율동이 시작되면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순번에 따라 유치부 아이들이 직접 헌금위원이 되어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매주 정

성껏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믿음을 자라가게 합니다.

장년 예배와는 달리 시끌벅적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일어나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매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 암송,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QT-In 생활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깊게 내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유치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큰 보람과 감사를 느끼며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베델에 새가족이 늘어나면서 유치부에도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장해 가는 유치부를 위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학생분들께서 선생님과 TA로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현 집사

예살 간증
셀목자

다시 부르신 자리에서

2016년에 셀목자를 1년 하고 나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번아웃으로 예살을 떠났다가 2022년에 돌아온 후에도 목사님 권유로 두 팀만 하기로 했고, 매 팀이 끝날 때마다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네 번째 셀이 끝났을 때는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고, 침묵이나 굳은 얼굴이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저인데도 목회진이 허락하신다면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올해 상반기 셀을 돌아보니, 남은 셀원들에게 입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삶을 이렇게 깊이 나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셀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셀원들을 함께 빚어 가신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려워하던 한 초신자는 친한 언니의 권

유로 예살에 와서 태어나 처음 드린 예배에서 평안을 경험했고, 이후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기쁨과 호기심으로 셀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머리로만 교회를 다니다 떠났던 또 다른 새신자는 힘들었던 과거를 나누며 하나님과 일생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매일 큐티를 나눕니다. 청2에서 올라온 막내 셀원들이 저를 어려워할까 걱정했지만 감사하게도 기우였고,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돌아온 마음, 말씀을 통해 열리는 초신자의 마음, 다섯 번의 셀을 함께한 영혼의 성숙 과정, 2년 전 믿음 없이 왔다가 작정하고 세례받기까지의 간증. 행복한 시간만 있진 않았고, 상황이 어려워져 못 나오게 된 영혼도 있었고, 그 슬픔을 같이 견뎌내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걸 좋아할까' 하며 작년부터 이번 셀에도 한 달에 한 번 셀원들 중보기도 시간

을 했는데, 의외의 셀원들이 좋았다고,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고 할 때 작은 저를 이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셀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추억도, 주님의 만지심도 많았다'는 나눔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팀 셀원들을 생각하니 또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예수님을 삶과 간증으로 나누고, 다시 주님의 행하심을 목도하기를, 영혼을 사랑하기를 실패해도 계속 일어나 하겠습니다.

김승진 집사(청3)



성례
유아세례

사랑보다 깊은 약속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들이 유아세례를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운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모가 된 이

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로서의 책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며 가운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유아세례를 통해 가운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운이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운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훗날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가운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가운이에게 작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운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병주 집사/이정화



먼저 하운이를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순간

들이 많습니다. 행여 어디가 아프지는 않을까, 가정에서의 믿음과 교육이 아이에게 잘 전해질

수 있을까, 또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부모로서 저희의 한계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잠들기 전 기도문을 읽어 주는데, 그중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녀'라는 기도문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교육도 믿음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운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아세례를 통해 하운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부모인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운이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염국진/조윤정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심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심채플: 공병주 목사
 예심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교동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심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65차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전도폭발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을 배우고,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제자훈련입니다.

훈련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확신
- 2단계: 예수님의 제자훈련 원리와 전도의 실제
- 3단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근거
- 4단계: 반대 의견과 타종교에 대한 성경적 답변
- 5단계: 제자의 삶과 복음의 재생산



이 훈련을 통해 복음을 더욱 확신하고, 누구에게나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번 65차 전도폭발 훈련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 훈련 기간: 8월 25일(화)~12월 1일(화), 15주 과정
- ▶ 훈련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 장소: 베델교회 유년부실
- ▶ 훈련비: \$35(교재 및 훈련 진행비 포함)
- ▶ 신청 방법: 본당 앞 부스 또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세요.
- ▶ 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최동주 집사 (602)466-447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월)	8/2: ①부-박상곤	②부-박영덕	③부-백권기	④부-박세환
	8/9: ①부-마상오	②부-박원규	③부-손석환	④부-윤지섭
	8/16: ①부-박지학	②부-백영만	③부-변 진	④부-김수빈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8월)	8/1: 이요셉	8/8: 윤현돈	8/15: 이삼열	8/29: 이상훈
강단꽃(7,8월)	7/26: 배사라	8/2: 장석우	8/9: 오경희, 장다윤	8/16: 윤주원, 조나원, 최하자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진석(가정의학과), 간호사-최소진 다음주 | 의사-김규연(소아과), 간호사-주경아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 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수요일** **수요일**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담임목사님과 함께 구원론의 핵심을 배우는 수요일수요일행이 진행됩니다. 강의 북클릿 제작을 위해 참석 희망자 사전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북클릿은 권당 1부에 판매될 예정이며 등록하신 분들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8월 5일(수)부터 8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본당
사전 등록: QR 코드 또는 주일 코트야드 안내부스에서
자녀 돌봄: 유아·유치 및 K-5학년 대상(등록 시 함께 신청해 주세요)
개근 혜택: 8주 모두 참석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수요일저녁예배 시간 변경 및 온라인 스트리밍 안내** 8월 첫째주 수요일(8/5)부터 수요일저녁예배 시간이 저녁 7시로 변경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작합니다.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골방기도, 레위기기도, 두드림, 기도학교, 기도편지로 동역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7월 28일(화)-31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기도사역 팀(손용주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8월 1일(토) 오전 6시, 본당

◆ **제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통찰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알찬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특별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삼지 참고) 기간: 7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8월 1일(토) 오전 6시, 8월 2일(주일) 1-3부 예배

◆ **제8기 베델기도학교 모집**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울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접수마감: 8월 2일(주일)

등록방법/등록비: QR 코드 혹은 본당 앞 부스, 20불(교재 포함)
교육 기간: 8월 첫째 주-11월 첫째 주 (총 14주)
교육 내용: 8월 6일(목) 개강모임, 조별 기도모임과 책 나눔(12주), 기도 세미나(2회)
문의: 이봉운 집사 (714)788-1235, prayer.school@bkc.org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추가등록** 자녀의 뿌리와 미래를 함께 키우는 곳, 베델한국학교가 가을학기 추가등록을 합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 7월 20일(월)-7월 31일(금)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황수정 집사 (949)562-5262



Bethel Announcements

◆ **큐티인 섬머 챌린지** 교회학교에서 큐티인 섬머 챌린지를 진행중입니다.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하며 각 부서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매일 큐티를 한 친구들은 마지막 날 시상이 있습니다. 큐티책은 실내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31기 베델아기학교 모집**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놀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놀이와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기간: 8월 26일(수)-11월 11일(수) (총 12주)

시간/장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1시 45분, 할렐루야 채플, 유년부실
정원/등록비: 35명(선착순 마감), \$300
등록: 주일-본당 앞 등록 부스, 평일-교회 행정사무실
문의: 현승원 집사 (701)212-5517, 전소연 전도사 (562)282-2991

◆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 모집**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해 주실 유치부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보세요.

사역 시간: 주일 오전 9시 예배 or 11시 예배
문의: 김중현 집사 (949)533-4520, 전소연 전도사 (562)282-2991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화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QR 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큐티인 8월호 판매** QTin 8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기도해 주세요** 코스타리카 단기선교가 7월 27일(월)-8월 1일(토)까지 있습니다. 안전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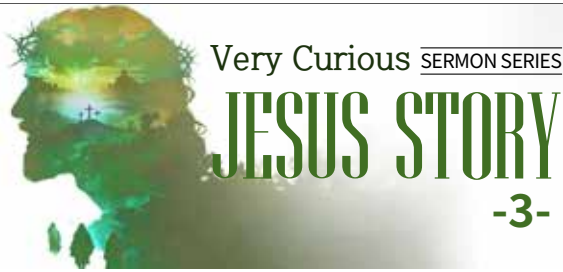
◆ **축하해 주세요** 강명성/임지현 집사 가정에 아들 인우(Connor)가 지난 18일(토)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정성원 권사님(정승환 집사의 모친, 정선희 권사의 시모)께서 7월 20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아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여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여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John 3:16 Also Needs to be Born Again (John 3:14–16)

1. Is there any aspect of my religious life where my deep emotion and gratitude have become dulled due to familiarity?
2. The 'world' mentioned in the text is not in reference to a good and beautiful place, but a world that rebels against God and loves darkness. If you have ever experienced God's love accepting you just as you are at a moment when you felt unworthy or distant from Him, let us share. (V.16)
3. The statement that Jesus must be lifted up on the cross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wilderness means that in the face of life's hardships or problems, rather than struggling to solve them on our own, we should look to the cross of grace. Compare the feelings of the people dying from snake bites in the wilderness as they looked upon the bronze serpent with our feelings as we look upon the cross. (V.14)
4. The example of how God 'so loved' me is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Have you ever felt this love very deeply? (V.16)
5. To whom was the promise of eternal life given? Let us meditate deeply on its meaning. (V.16)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